

“광주시민에 패기 넘치고 신나는 배구 보여드리겠다”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 '광주 시페퍼스' 창단식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선수들이 홈(빨간색)·원정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슬기, 하혜진, 이한비, 박시랑, 바르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프로 여자배구단 시페퍼스 힘찬 출발

김형실 감독 “인공지능 기술처럼 조직적 콤비 플레이하겠다”
 이한비 주장 “한마음 원팀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것”
 하혜진 “감초 같은 역할” ... 문슬기 “리베로, 남다른 책임감”
 바르가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 기대 커 ... 잘 해낼거라 자신”

광주 프로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30일 광주시청에서 창단식을 열고 첫 출발을 알렸다. AI페퍼스는 지난 9월 7일에야 전체 16명의 선수단을 꾸리고 오는 19일 데뷔전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사실상 신생팀으로 약체로 분류된다. 하지만, AI페퍼스 선수들은 “함께 모인 시간이 짧아서 연습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합을 맞춰가고 있다. 코트에서 활발하고 열정과 패기 넘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AI페퍼스는 한국 배구계에서도 특별한 팀이다. 10년만에 처음으로 창단한 신생 여자 프로배구 팀이며, 국가대표 감독까지 맡았던 백준호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15년만에 신생팀 감독

으로 코트에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며 “젊은 선수들과 함께 패기 넘치는, 신나는 배구를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AI페퍼스가 10~20대 젊은 선수로만 구성돼 있고, 신장도 작은 편이라고 짚었다. 개인 기량보다는 한 팀으로서 팀워크를 중심으로 전략을 잘 계획이다. 김 감독은 “여러 기술을 하나로 집약해 이뤄낸 AI(인공지능) 기술처럼 조직적인 콤비 네이션 플레이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선수들의 역할도 자리를 잡고 있다. 주장을 맡은 이한비(레프트)는 흥국생명에서 6개 시즌을 뛰며 파워풀한 플레이로 주목받았던 선수다. 짧은 적응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선·후배들을 한 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 '광주 시페퍼스' 창단식에서 김형실 AI페퍼스 초대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고 있다. 이한비는 “처음으로 주장을 맡게 돼 떨리지만, 언니, 후배들도 잘 따라 주고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다”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하혜진(라이트)은 레프트, 라이트, 센터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라이트

를 맡은 바르가의 상황에 따라 센터와 라이트를 오가며 감초같은 역할을 맡는다. 하혜진은 “비시즌 동안 준비 잘 했으니, 어깨가 무겁다는 부담감은 없다. 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슬기(리베로)도 팀 내 유일한 리베로로서 책

임감이 남다르다. 11년 동안 실업팀에서 뛰어왔던 베테랑으로, 수원시청에서의 활약을 보고 김 감독이 눈여겨봤던 선수다. 문슬기는 “팀원들이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겠다.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으로 팬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192cm의 체격을 활용한 높은 타점을 갖고 있는 헝가리 출신 옐리자벳 이네 바르가(라이트)도 주목할만 하다. 바르가는 “모든 상황이 새로워서 긴장된다. 좋은 팀원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 관심을 것 같다”며 “새 도전이 기대된다. 한국만의 특색 있는 배구가 굉장히 기대되고, 나도 잘 해낼 거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AI페퍼스가 가장 아쉬운 건 시간이다.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타 구단에 비해 연습량과 연습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실전과 연습을 병행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각오를 내비쳤다. 김 감독은 “아직 결과를 담담할 수 없다. 다만 어느 팀을 상대하더라도 1승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주는 팀을 만들고 싶다”며 “선수들에게도 언제든 1승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필요일에는 한승혁이 선발로 들어가고, 임기영이 다음 화요일에 등판할 예정이다”고 선발 로테이션을 설명했다. 10월을 앞두고 부상 복귀도 있었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쉬어갔던 내야수 류지혁이 30일 최정용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류지혁이 이틀 전에 퓨처스리그에서 지명타자로 경기를 소화했다. 어제는 비로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2군에서 한 타석 들어가고 수비도 소화하면서 준비를 끝냈다. 일단 벤치에서 대기하면서 시작하지만 경기를 뭘 준비가 끝났다”고 류지혁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자랑스런 팀 될 수 있게 아낌없는 응원을”

장매튜 AI페퍼스 구단주

장매튜(사진)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30일 AI페퍼스 창단식 축사에서 “150만 광주 페퍼 가족 여러분은 AI페퍼스가 훌륭한 팀, 자랑스러운 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비상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확히 8년 전인 2013년 10월 18일, 페퍼저축은행은 27명 직원과 총자산 1700억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단 8년만에 총자산 5조원을 넘고, 1200명 직원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했다”며 “페퍼저축은행이 크게 성장했듯, AI페퍼스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처음 AI페퍼스 창단을 준비할 때 페퍼저축은행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무척 기뻐고, AI페퍼스를 통해 한국여자배구 도약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구단 이름을 AI페퍼스로 정했을 때 많은



“신생 구단이 V리그에서 최소 10년 넘도록 싸워온 다른 팀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언제 첫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며 “김형실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단 모두가 막내 구단으로서 패기와 투지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KIA, 휴식 없이 28경기 ... ‘도전의 10월’

오늘 키움 히어로즈와 15차전

도전의 10월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는 챔피언스 필드에서 1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15차전을 갖고 10월 일정에 돌입한다. 예년이었으면 내년 시즌을 기약하고 있을 시점이지만 2021시즌은 아직 뜨겁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취소와 전반기 조기 중단, 그리고 도쿄올림픽 휴식기까지 겹치면서 올 시즌은 10월 30일에 정규시즌 일정을 마감한다. 10월 30일 안방에서 키움을 상대로 올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 KIA는 쉼 없는 10월을 앞두고 있다. KIA는 지난 30일 경기까지 총 116경기를 치르면서, 마지막 10월 한 달 28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야구 없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최종전이 열리는 30일 전까지 야구 없는 날은 26일 단 하루다.

예년과는 다른 ‘도전의 10월’이 펼쳐지는 셈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도전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올림픽도 있었고 퓨처스리그 경기도 많이 취소되면서 전체적인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팀이 겪는 어려움이다”며 “비시즌이 짧아진다는 부분도 어려움이다. 시즌이 늦게 끝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동시에 기획이기도 하다. 한 달 가량 많은 선수를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도전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KIA로서는 선발진이 고민이다. 김현수가 팔꿈치 통증으로 빠지면서 선발진 옵션이 줄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염증이 있는 만큼 김현수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불펜 자원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새로 가세한 ‘육성형 외국인 선수’ 보 다카하시

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카하시의 올 시즌은 물론 내년 시즌을 위한 키맨이다. 지난 25일 SSG전을 통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다카하시가 10월 첫 경기를 열게 되고 맹타에 이어 ‘예비역’ 한승혁이 선발 어필 무대를 갖게 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다카하시는 이번 등판에서 85~90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5이닝 이상 90개 정도에 맞추고 있다”며 “일요일에는 한승혁이 선발로 들어가고, 임기영이 다음 화요일에 등판할 예정이다”고 선발 로테이션을 설명했다. 10월을 앞두고 부상 복귀도 있었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쉬어갔던 내야수 류지혁이 30일 최정용을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류지혁이 이틀 전에 퓨처스리그에서 지명타자로 경기를 소화했다. 어제는 비로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2군에서 한 타석 들어가고 수비도 소화하면서 준비를 끝냈다. 일단 벤치에서 대기하면서 시작하지만 경기를 뭘 준비가 끝났다”고 류지혁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